

“어두운 밤길·빗길에도 잘 보여요” 서울시, 차선 1174km 고성능 개선

교통량 많은 6개 지역 차선 174km 조명 부착 등 신기술 추가 적용 오는 7월까지 시공... 추적조사 예정

어두운 밤길과 빗길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고성능 차선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 차선 1174km를 고성능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성능 차선은 반사 성능이 높은 유리알을 차선 도색용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 기존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시내 차선 총 7216km 중 1174km(약 16%)를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중 교통량이 많은 6개 지역 차선 174km에는 조명 부착 등 신기술을 추가로 적용해 효율성을 검증한다.

차선 신기술이 추가로 도입되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동교동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우천형 유리알, 비정형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등의 새로운 공법을 검증한다.

우선 시는 점선인 차선 끝 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LED ‘도로표지



돌출차선 시공 사례. /서울시

병’을 설치해 차선의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해볼 예정이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물에 잠겨도 표지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운전자가 차선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마포구 동교동 등에 시범 적용된다.

표면에 울퉁불퉁한 골극이 있어 차

선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돌출차선’도 현장에 도입된다. 재료 특성상 반사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 속도가 빨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선 테이프’는 영등포 여의도동에 적용해볼 방침이다.

일반 유리알보다 반사 성능이 좋은 ‘우천형 유리알’을 일정 비율 이상 차선용 페인트에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은 광진구 구의동에 시범 도입된다. 현재 고성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보다 고가지만, 반사 성능이 높아 비 오는 날에도 차선이 눈에 잘 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신기술을 입힌 차선의 시공을 마치고 서울연구원과 내구성·시인성·시공성 등에 대한 1년간의 추적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효과가 우수한 공법은 향후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사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총 1174km의 차선을 고성능으로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면서 “이와 함께 서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노면 표시 기술을 발굴·도입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교육부, 내년 교육대학 입학정원 12% 감축

이화여대 제외, 3808명 → 3351명

정부가 내년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을 12% 줄인다. 교대 인원을 조정하는 건 13년 만이다. 단, 사립대학인 이화여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지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9명 규모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현재 3808명에서 2025학년도 3351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이화여대의 경우, 사립대학인데다 정원 규모가 적어 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은 이화여대(39명)를 포함해 3847명으

로 동결돼 왔다. 2000년 4945명에서 2005년 6225명까지 확대된 후 매년 감축하다 2012년부터 3848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 혁신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 광주시, 버스노선 일부 개편안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환승체계 구축 차고지 중심, 지·간선 체계 개편 골자

경기 광주시가 ‘광주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계획’ 중 일부 개편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역내 교통 소외지역의 통학 여건 개선과 역사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광주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사업은 출·퇴근,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체계 구축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한 지·간선 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은 2번 시내버스 노선과 광주12번 마을버스 노선, 퇴촌권역 38번 계열 대계동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을 2개 노선(431·432번)으로 통합한다. 또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10대에서 17대로 증차

할 계획이다.

시는 유사 노선(마을버스 광주1번, 광주2번)에 대한 증차 병행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 시행과 함께 마을버스 1개 노선(광주6)을 추가 신설해 목동·직동에서의 태전지구 학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삼동역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광주14번 노선의 경우 경로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환승 체계와 번호 체계 개편이 같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의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단계적인 개편계획 이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디자인으로 선유도역 골목상권 살린다

서울시, 상권 살리는 골목 디자인 ‘선유로운 20’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상권 살리는 골목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선유로운 2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본 사업은 골목 안에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점포를 쉽게 인식해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테이블, 벤치 등의 조형물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는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와 선유로55길 골목상권, 양평로22라길 선유 걷고 싶은 거리에 지역 랜드마크와 벤치, 상권 안내 사이니지(안내판) 등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는 ▲포토존(1종) ▲벤치 및 테이블(12종) ▲안내 사이니지(2종) ▲상점



선유로운 포토존. /서울시

플래그와 펫파킹(5종)을 포함 총 20종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인 ‘선유로운’을 살리는 20가지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의미로 ‘선유로운 2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선유로운’ 상권을 찾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 골목으로 유

입시키고, 상권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골목 인근 조형물에 디자인을 입히는 전략을 모색했다”면서 “방문객이 지나치는 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숨어 있는 상점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대로변에 테이블과 벤치를 마련해 선유도, 한강공원 방문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환경 조성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 마련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해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수

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친환경버스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 버스 143대)를 도입한다.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증대 방안을 발굴해 운송수지 적자를 메울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설치 예정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도록 보행 신호의 시간을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14곳에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감지 시스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이 하나 이상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도입한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한 AI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설치 예정 지역은 처인구 역북초와 용인둔전초, 기흥구 구성초와 초당초, 수지구 대지초와 현암초 등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4곳이다.



용인시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용인시

시는 초등학생의 주요 통학로인 이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설치하면 성인보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백현초 앞에 설치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비롯해 97개의 LED 바닥 신호등과 114개의 음성 안내 보조장치, 174개의 활주로 표지병, 38개의 우회전 안내 시스템 등 총 525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